

## 2. 중남미 금융불안의 요인과 영향

- (현황) 러시아 금융위기가 악화되면서 남미의 금융동향이 불안정해지고 있음. 베네수엘라는 원자재가 급락으로 큰 손실을 입었고 볼리바르貨 절하 가능성이 높아짐. 브라질의 경우 외환보유고가 7백억 달러에 이르고 있지만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대규모 외화자금의 해외로 유출. 비교적 견실한 기초여건을 기록한 멕시코 경제도 최근 환율과 주가지수에서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원인과 전망) 남미는 아시아나 러시아와 교역관계나 금융적 연결고리가 깊지 않았으면서도, 원자재 가격 하락과 신흥 시장 불안에 따른 국제 투자자의 심리 냉각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음. 그러나 그 위기의 정도는 동유럽보다 심각한 상황임.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남미 각국 정부의 강력한 통화방어 의지에도 불구하고 연속적 평가절하를 예상하는 시각이 많음
-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남미 국가들의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전자부품, 섬유, 자동차 등 對중남미 주요 수출품을 중심으로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 남미의 금융 위기 현황

- (러시아 위기로 인한 신흥시장 불안 심화) 러시아의 금융위기가 악화되면서 신흥시장, 특히 남미의 금융동향이 불안정해지고 있음
  - 러시아는 8월 17일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환율 및 주가가 지속적으로 불안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대외 지불유예 대상 채권을 확대하고 8월 27일에는 외환거래를 중지시키는 등 일련의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외국투자자들이 회의를 품고 있음
  - 이러한 러시아의 사태 전개는 남미 금융불안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남미의 금융불안 상황) 멕시코,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주요 중남미 국가들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98년 들어 주요 재정 수입원인 원유 등 수출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되었음
  - 아시아 금융위기로 미국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수출시장의 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 위기를 맞이함

- **(베네주엘라)**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원유를 주요 수출품으로 하는 베네주엘라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락으로 큰 손실을 입었고 이에 따라 불리바르貨의 절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30억불에 달하는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불리바르貨의 절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임
  - 최근 정부는 IMF의 구제 금융 신청을 고려중에 있음
  
- **(브라질)** 브라질의 경우 외환보유고가 7백억 달러에 이르고 있지만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하루에 10억 달러에 가까운 외화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브라질 경제는 올해 1%선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외자 이탈 움직임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이 발표된 이후 대표적 주가지수인 보베스파 지수가 연중 최저치까지 하락했음. 브라질의 시장상황을 평가하는 뉴욕시장의 브라질 채권가격도 급락함. 브라질 주식시장의 7월말 현재 순수 외국인 투자는 200억 달러로, 4월의 262억 달러에서 크게 줄어들었음
  
- **(멕시코)** 98년 상반기에 성장세 지속, 재정수지 흑자, 고용안정 등 비교적 견실한 기초여건을 기록한 멕시코 경제도 최근 환율과 주가지수에서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연속적인 긴축재정 및 통화정책 시행으로 불안하게나마 안정을 유지해오던 환율 및 주가지수는 일본과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에 러시아 사태가 가해지면서 급변하고 있음
  - 멕시코 주가지수인 IPC도 지난해말, 5,229에서 현재 3,500~3,600대로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 25%나 떨어졌고 폐소화도 13%나 하락하여 94년 멕시코 위기이래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하였음
  - 주가지수 하락의 원인은 단기매매가 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며, 환율상승은 총 390억 달러의 외국인 자본이 투입되어 있는 주식시장이 침체하면서 외국인 자본의 유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lt;중남미 주요국의 주가 및 환율동향&gt;

		97년말	98년 3월말	98년 7월말	8월 24일	전년말 대비(%)
주 가	브라질	10,196.5	11,946.6	10,707.3	7,755.4	-23.9
	멕시코	5,229.4	5,016.2	4,245.0	3,413.0	-34.7
	아르헨티나	687.5	710.0	588.8	409.1	-40.5
	칠 레	4,794.4	4,833.2	4,117.8	3,564.3	-26.6
	베네주엘라	8,656.0	7,685.8	4,846.4	3,173.6	-63.3
환 율	브라질	1.1161	1.1362	1.1620	1.1747	-5.0
	멕시코	8.1350	8.5350	8.9075	9.8600	-17.5
	아르헨티나	1.00	1.00	1.00	1.00	0
	칠 레	439.85	454.35	465.05	473.55	-7.1
	베네주엘라	504.45	523.70	563.00	574.50	-12.2

## □ 남미 위기의 원인과 전망

- (남미 위기의 원인과 경로) 남미는 아시아나 러시아와 교역관계나 금융적 연결 고리가 깊지 않았으면서도 금융위기 전파의 영향을 받고 있음. 일반적으로 금융 위기가 전파되는 경로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① 무역을 통한 전달 : 경쟁국의 연이은 통화 절하로 수출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는 것임
  - 체코나 헝가리, 폴란드의 경우 對러시아 수출이 97년 총수출의 5%도 채 안되고 GDP의 1~2%에 불과하여 러시아 모라토리엄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음
  -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러시아, 아시아와의 교역이 미미했으므로 이를 통한 위기의 전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② 상품가격을 통한 아시아 위기의 전파 : 동아시아 국가들은 원자재의 주요 수입국인데 이 국가들의 경기침체로 인해 원유, 비철금속, 목재 등 각종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음. 게다가 러시아가 경기부양을 위해 원자재 수출을 더욱 늘릴 것이라는 우려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더욱 심화되었음
  - 국제 원유가는 지난 7월이래 1/3 가까이 하락했음. 이에 따라 원자재 주요 수

출국인 라틴 아메리카는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었음

③ 아시아, 러시아 위기로 주요 국제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냉각 : 아시아에 이어 러시아의 붕괴는 신흥시장 전체의 위기로 받아들여져, 최근 많은 자금이 라틴 아메리카를 탈출하여 미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에 집중 투자되고 있음

- (남미 금융 위기의 정도) 전세계 신흥시장이 불안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음. 라틴 아메리카는 동유럽에 비해 그 위기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임

- 라틴 아메리카는 아시아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음. 올해 이 지역의 경상적자는 총 GDP대비 4.2%로 추정되고 있는데 동유럽의 2.5%에 비하면 대단히 높은 수준임
- 게다가 라틴 아메리카는 누적된 외채가 많은 상태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외채는 총수출 규모의 300%를 넘고 있음
- 브라질의 경우 재정적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8년말에는 GDP대비 7%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해왔음
- 현재 신흥시장 전체가 경제적 타격을 입고는 있으나 그 위기는 남미에서 훨씬 심각함. 또한 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은 원자재 수출비중이 대단히 크고 그중 몇 개국은 경제기조도 건전하지 않아 전염효과(contagion effect)가 대단히 심각함. 브라질의 레알화가 절하압력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 근거함

- (국제금융계의 시각)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남미 각국 정부의 강력한 통화방어 의지에도 불구하고 연속적 평가절하를 예상하는 시각이 많음

- 남미국가들은 러시아와 함께 신흥시장으로서 미국의 뮤추얼 펀드 등 해외자금 유입에 크게 의존해왔기 때문에 자금의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동남아·동구에 이어 금융위기를 맞게 됨
- 베네주엘라의 경우 금융당국이 20년만기 달러표시 국채의 금리를 급격히 인상시키는 등 통화방어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가용 외환보유고가 145억 달러에 불과하여 평가절하가 임박한 것으로 보임
- 브라질 정부는 700억 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고로 환율을 방어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10~30% 정도 고평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레알화는 평가

절하의 표적이 될 전망이다

- 베네주엘라를 시작으로 평가절하 현상이 남미 전역으로 파급될 경우 이 지역과 경제관계가 매우 긴밀한 미국에 그 파급효과가 우려되고 있음
- 그러나 남미의 금융불안으로 국제 투자자금이 더욱더 미국시장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많아 달러화에는 오히려 강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 중남미 국가들의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전자부품, 섬유, 자동차 등 對중남미 주요 수출품을 중심으로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98년 상반기 對중남미수출은 4,365백만 달러(총수출대비 6.5%)로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하였음
  - 금융기관이 중남미에 투자했거나 대출해준 자금은 98년 3월말 현재 11.5억 달러이며 종금사들의 투자금액이 많은 편임
- 외국 민간자본의 유입과 해외차입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신흥 시장 이탈 자금이 한국시장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음
  - 러시아가 지불유예 대상채권을 확대하고 채무만기연장 내용에 대해 불확실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신흥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따라서 외국 민간자본의 유입과 최근 개선추이를 보여왔던 해외차입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동유럽과 남미의 불안으로 빠져나온 자금이 비교적 안정적이면서 고수익이 예상되는 한국시장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향후 국제금융시장은 아시아, 러시아, 중남미 등 신흥 시장의 금융불안이 상호 영향을 주면서 국제자본이 어느 지역으로 옮겨가는가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보임

(양 두 용 yangdy@hri.co.kr ☎724-4057, 양 성 수 yangs@hri.co.kr ☎724-4017)